



전략 소식지

3권 11호
2017년 11월

10월 주요활동

주요 한-미 국방인사 동맹현안 논의



사진: 미 국방부, 미 언론, 미 국방부, 미 언론, 미 국방부, 미 언론

미 합참의장 조 던포드 해병 대장 (가장 왼쪽),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왼쪽 두번째), 국방부장관 송영무, 합참의장 정경두 공군 대장이 의장대 환영행사 중 경례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동맹이 당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 던포드 합참의장은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한·미 군사안보협의회의에서 각각 한측 파트너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및 정경두 합참의장과 만났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환경속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매년 양측 인사들이 만나 한-미 동맹이 당면한 현안들을 토의하고 이러한 현안들을 얼마나 잘 해결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기회이다. 또한 두 연례회의를 통해 양국은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하며 지표를 세워왔다.

“외교적 해결이 여전히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방안은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매티스장관은 밝혔다. 또한 “오만하지 말라. 미국이나 그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행위라도 반드시 격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커레이저스 채널’ 정례 비전투원 후송훈련 실시

주한미군은 한국 국방부 및 미 국무부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계획된 훈련의 일환으로 연례 비전투원 후송훈련 ‘Courageous Channel’ (커레이저스 채널)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동 훈련은 장병들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이 비전투원 대피 및 자연 또는 인적재해와 같은 광범위한 위기관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훈련 참가자들은 준비태세 브리핑, 필요 서류 및 여권검사, 인명부 최신화와 제한된 예행연습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올해의 훈련은 기존의 훈련에서 벗어나지 않은채, 예년대비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내부적 사안에 중점을 두어 군사시설 내부 및 주변의 일상활동에 거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 지정학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병력은 시스템과 인력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커레이저스 채널 연례훈련을 통해 항상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며, “이번

한·미 공군지도부, 제20회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에서 회동



사진: 미 공군, 미 언론, 미 공군, 미 언론, 미 공군, 미 언론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 테렌스 J. 오쇼너시 미 공군 대장과 하이드 그랜트 미 공군성 국제문제 담당 부차관이 제20회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에서 공군참모총장 이양근 대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행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 (서울 ADEX 2017)과 연계된 많은 행사중 하나이다. 서울 ADEX는 동북아 최대 규모로서 가장 광범위한 행사와 연계되어 개최되며 비행, 항공우주 전문가, 주요 국방인사는 물론 비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훈련은 전차 포격 및 전투비행단 연습과 같은 다른 일상적인 연습 만큼이나 준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군, 미 핵 잠수함 미시간호의 부산입항을 환영하며 동맹관계를 공고화



사진: 미 해군, 미 언론, 미 해군, 미 언론, 미 해군, 미 언론

미국의 오하이오급 유도탄미사일 잠수함 4 대중 하나인 미시간호가 10월 13일 정례 서태평양 전개 중 부산항에 입항했다. 부산 방문간 승무원들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 미 해군과 한국군, 부산 지역민들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10월 주요 방문객

사령부와 우리의 임무 및 부대원들에 대해 알리고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다음은 지난달 사령부를 찾아 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

- 프랑수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 티토 사울 피닐라, 주한 콜롬비아 대사
-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
- 조윤제, 주미대사 내정자
-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 마리츠 페인, 호주 국방장관
- 잭 리드, 미 상원의원 (민주당-로드아일랜드)/상원 군사위원회 (차선임위원), 상원예산위원회-국방비
- 톰 맥아더, 미 하원의원 (공화당-뉴저지)/하원 금융위원회
- 라말 스미스, 미 하원의원 (공화당-텍사스)/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위원장
- 그렉 모리아티, 호주 국방장관
- 프랜시스 아담슨, 호주 외교통상부장관
- 조셉 던포드 육군대장, 미 합참의장
- 마크 빈스킨 공군원수, 호주 국방참모총장
- 해리 해리스 해군제독, 미 태평양사령관
- 테렌스 J. 오쇼너시 공군대장,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